공식 커밍아웃 日성소수자 스님 '화제'

니시무라 코도 스님, 평등사상 재조명

사찰 주지 2세대로 태어나
어린시절 성적지향 깨달아
"중요한 것은 불교의 평등"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박영빈 객원기자

성소수자를 금기시하고 배척하던 풍조가 완화된 현대. 불교계를 비롯한 각 종교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교리적 해석과 교육, 접근방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스님이 화제다.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공표한 니시무라 코도 스님이다. 지난 9월 12일 일본의 인터뷰 전문지 '리얼 사운드'는 코도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코도 스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는 걸 인지했다. 스님은 "집이 절이다보니 보자기나 원단이 창고에 가득했다. 그걸 드레스처럼 몸에 감거나, 머리에 쓰곤 했다"며 어릴 적을 회상했다. 스님은 "12살에 욕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화장을 했던 게, 생애 첫 화장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스스로를 억압하고, 주변의 조롱 속에서 고통 받았다. 스님은 "지금도 종종 보이지만, 어릴 적 TV프로그램에서 남성이 여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학교에서 조롱을 당할 때 마다 TV속의 내용들과 겹쳐져 내가 나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학우들의 시선이 당시엔 굉장히 무서웠다"며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한 반발심에 스님은 고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예술대학으로 진학해 메이크업 아트를 공부한 스님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리고 같이 유학하던 한국인을 계기로 다시금 억압해온 자신과 멀리해온 불교를 되돌아보게 됐다. 스님은 "같이 유학하던 한국인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무런 고민 없이 휴학을 하고 귀국했다. 심지어 마지막 발표에선 군복을 입고 운동을 하거나 점호를 받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의 행동은 스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자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저 일은 저 친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시작했다. 그 결과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불교를 바라보았다"고 밝혔다. 답을 찾은 스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바로 출가했다.


성소수자 당사자이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활동하는 코도스님. 사진출처=리얼 사운드

코도 스님은 '성소수자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것이 불교의 수행과 출가자라는 역할에 미친 영향은 무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불교의 평등함과 일반적인 불교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스님은 "성소수자로서 여성의 복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더라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액세서리나 화려한 화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구제 받는다'는 것이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경에는 불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부러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걸치거나,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몸과 상호로 나타난다고 한다"며 "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만 보아도 기존의 고리타분함이나 단순한 선입견들이 타파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성소수자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 자신으로 살아야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니까 이성애적인 모습을 억제해야 해'와 같은 생각이나, '남들에게 나쁘게 보여선 안돼' 같은 생각이 아닌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현재 코도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판하고, 성소수자들을 위한 강연 등을 통해 불교와의 만남을 전하고 있다.

570년 역사 고찰, 호텔로 재탄생

日, 호텔 속 사찰 '화제'

교토시 중심가에 소재한 고찰이 특별한 모습으로 재건됐다. 지난 9월 17일, 일본의 '교토 신문' '아후재팬뉴스' 등 주요 언론들은 호텔로 재건된 고찰 죠교지(淨教寺)의 현황을 보도했다.

1449년 창건된 정토종의 고찰 죠교지(淨教寺). 절의 전승에 따르면 실제 창건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 1171년이라고 전한다. 교토시의 중심가에 위치해 예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던 사찰이다. 그러나 세월에 따른 시설의 노령화와 자금난등으로 사찰의 유지보수가 어려워졌다. 죠교지의 주지 미츠야마 킨타케 스님은 "죠교지의 본당은 이미 190여년전에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지진과 태풍 등으로 지붕이 내려앉고 누수가 생기는 등 재건축이 필요했다"며 열악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절 자체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신도들에게 재건을 위한 보시를 요구하는 것도 넌센스였다. 사업을 생각하던 중 현재의 입지라면 호텔이 최적이었다"고 계기를 전했다. 킨타케 스님은 "현재 대부분의 사찰들이 지속해 나가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신도의 감소를 비롯, 전통적인 사찰의 기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다른 사찰들에게 새로운 재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텔의 이름은 '미츠이 가든호텔 죠교지'. 일본 전국에 산재한 호텔 체인인 미츠이 가든호텔과 연대하는 형식으로 사찰이 재건됐다. 지난해 초 기존의 조교지를 철거한 후 기초공사를 위해 발굴조사와 문화재 조사가 진행됐다. 그 후 진행된 호텔건설과 인테리어는 기존의 죠교지를 이미지화 하고, 교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건축됐다.


호텔내부에 새롭게 재건된 죠교지 법당. 사진출처=미츠이 가든 호텔

1층 로비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 죠교지의 본당과 호텔 데스크로 구성됐다. 둘 사이에는 통 유리창이 설치되어 사찰과 호텔의 일치감을 강조했다. 또 로비에는 기존의 죠교지를 철거하면서 수습된 고재와 조각 등을 전시하는 것으로 인테리어를 구성했다.

미츠이 가든호텔 측은 "500여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고찰과 연대하여 새롭게 세워진 곳이기에 시설적인 면이나, 호텔 제공 프로그램 모두 교토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호텔 측은 조식으로 사찰요리에서 따온 메뉴를 준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호텔은 오는 9월 28일 본격 개업할 예정이나 이미 상당수 객실의 예약이 차있는 상태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불교탄압에 천년고찰까지 파괴

국제공항 인근 푸윈 사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충격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적 종교'라는 명목하에 직접적인 탄압을 피해왔던 불교마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인도의 유력매체 '인디아투데이'는 중국정부가 천년고찰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푸윈(Fuyun) 사원은 산시성 타이위안 우수 국제공항 북동쪽에서 8.5km 지점에 있다. 이 사원은 현지의 티베트인과 중국인불자 사이에서 유명한 사찰이나, 국제공항에 인근에 위치한단 이유로 중국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다. 이미 지역 공산당은 15년 전, 사찰이 완료한 보수공사가 올바르게 시공되지 않았다며 사찰 내 신행활동을 통제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을 사찰에 강요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푸윈사원. 사진출처=비터윈터

인디아 투데이는 중국정부의 종교탄압을 감시하는 '비터윈터'의 보고를 인용해,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2006년에 시작된 보수공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완공까지 3여년이 걸렸다. 또 기존의 법당들이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개조됐고, 스님들의 요사채는 축소되어 사실상 종교적인 시설로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교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7월 24일에서 29일 사이에 푸윈사원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7월 21일 공안들이 불도저와 공사 장비를 가지고 푸윈 사원에 도착했으며 사원에 거주중인 직원과 승려들에게 즉시 건물을 떠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했다. 저해상도 위성사진을 보면, 7월 24일까지는 중앙법당의 지붕이 확인되지만, 29일에는 법당의 기단부만이 확인되며 9월 17일에는 전깃줄을 제외하고는 사원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은 "푸윈 사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파괴됐다. 사원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모두 갑자기 통행 금지됐다. 거대한 불상과 불화를 포함한 많은 불교 유물들이 사라진 모습은 마치 탈레반에 의해 사라진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불상 파괴 사건과 같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휴식용 대마초 판매점에 '행복한 부처'?

불교 폄훼행위로 논란

지난 9월 15일 호주 지역 신문 '빅토리아 뉴스'는 시드니의 첫 휴식용 대마 판매점이 불교도를 존중하지 않는 간판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시드니에 개업한 휴식용 대마 판매점의 이름은 '행복한 부처 대마초(Happy Buddha Cannabis)'로, 가게 외부에 불상 등, 불교가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를 최초로 지적한 현지 주민 리처드 탤벗은 "휴식용 대마 판매점의 이름은 불자나 불자의 지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이다. 불교는 대마를 비롯한 중독성 물질을 멀리하라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복한 부처 대마초 매장을 운영하는 신디 펜더게스터와 브래드 스타일즈는 "불교의 밝고 개방적인 세계관을 반영해 매장의 이름을 결정했다. 부처라는 이름과 상징은 개인적, 사업적 공간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복한 부처 대마초' 매장을 소유한 신디 펜더게스터와 브래드 스타일즈. 사진출처=빅토리아뉴스

대마초 매장의 명칭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고발로까지 진행되면서, 시드니 지방법원은 시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장을 마련했다. 이해당사자들은 또한 오는 9월 28일에 열리는 특별시민참여의회 정례회의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사)대한불교원융종 창종 43주년 기념 2020학술대회

감사의 말씀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은 1977년 창종 이래 불조혜명을 현실구현하기 위한 노정을 지속해오고 있는 바, 올해 창종 43주년에 즈음하여 창종 정신이 담긴 원융회통사상의 실천과 유수종단의 위상에 걸맞은 소명을 다한다는 취지 아래, '포스트코로나(Post-COVID),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과 사찰경영'이란 주제로써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을 모색하고 단위사찰들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범불교 차원의 뜻 깊은 학술대회를 9월 27일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원만 성료 하였습니다. **본 종단은 창종 40주년에 즈음한 2017년에는 종단의 현재와 지표를 모색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종단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의무화에 발맞춰 금번 2020학술대회의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소정의 인원만 동참한 가운데 개최한 바, 종단의 이러한 입장을 혜량해주신 많은 스님 분들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종 44주년에 즈음한 2021학술대회는 올해 못 다한 아쉬움과 뜨거운 성원의 감사함을 가득 담아 더욱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옥고를 발표해주신 박경준·이혜숙·문을식·하춘생·김호귀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학술대회의 취지가 한국불교의 현재적 교훈과 지표설정에 일대사인연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

2020년 9월 28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원융사 Tel. 02-853-0430~1 Fax. 02-857-5094 www.wonyung.org